

韓國과 中國의 古代 佛敎建築 比較 연구

- 佛殿의 莊嚴法式을 중심으로 -

이 강 근*

차 례

I. 머리말	III. 宋·遼·金代 佛殿의 莊嚴
II. 唐·五代 佛殿의 莊嚴	1. 宋·遼·金代 佛殿의 尊像 奉安
1. 唐·五代 佛殿의 尊像 奉安	2. 宋·遼·金代 佛殿의 壁畫 莊嚴
2. 唐·五代 佛殿의 壁畫 莊嚴	IV. 韓·中 佛殿 莊嚴의 比較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건축은 단지 한국건축사 연구의 보조자료일 뿐 아니라, 역사상 실재했던 양국간 교류의 실상을 가장 잘 드러내 줄 문화적 증거물이다. 일찍이 두 나라 미술문화 교섭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대별 연구가 한국미술사학회 차원에서 진행될 때 건축사 분야에서 고구려와 백제건축의 對中交涉을 각각 심도있게 다룬 것도 그 때문이다.¹⁾

그러나 일반적인 교섭사를 전제로 두 나라 건축을 상호 관련짓기 이전에, 건축사적으로 면밀한 비교 연구가 선행·축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목구조의 관점에서 불교사원내 목조건물을 대상으로 평면유형과 결구형식을 상호비교한 최근의 연구는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²⁾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교수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1999-041-100066)

1) 김동현, 「高句麗建築의 對中交涉」,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예경, 1996) ; 이왕기, 「百濟建築의 對中交涉」, 『百濟 美術의 對外交渉』(예경, 1998).

2) 張憲德, 「中韓寺刹殿堂木結構比較研究 -10世紀~16世紀爲主-」(清華大學建築學院工學博士學位論文, 1999. 6).

그런데 鳳亭寺 極樂殿을 제외하면 고려 중엽 이전의 목조건물이 한 채도 남아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고구려 백제·신라·통일신라·발해·고려초기 절터의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盛唐의 南禪寺 大殿(782년)을 비롯하여 五代, 宋, 遼, 金代의 佛殿을 수십 채 이상 남기고 있는 중국에서는 南北朝·隋·唐代的 절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대조적이다.³⁾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高句麗古墳壁畫의 건축요소를 연구하여 고구려건축의 복원설계 및 모형제작에 응용하여 왔다.⁴⁾ 또한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의 開鑿 이후 여러 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굴착된 石窟寺院의 그림과 조각에 표현된 건축요소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⁵⁾.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비교 연구는 이러한 한계와 성과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불전 내부의 尊像奉安法과 莊嚴法을 밝히고, 이를 한·중간에 비교하려는 이번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고려말 조선전기 불전의 내부공간구성을 조선후기 불전의 그것과 비교하고,⁶⁾ 이를 다시 先代의 佛殿 遺構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역대 불전의 평면형식, 내부 존상의 봉안법과 장엄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다.⁷⁾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중국 불전과의 비교를 시도하려고 한다.

특히 皇龍寺址 中金堂, 화엄사 각황전 등에서 보이는 內陣壁을 가진 內外陣二重形式 佛殿의 기원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간다라 사원지나 베제클리 석굴사원에서 동일 형식의 금당이

- 3) 그 결과 가람배치형식의 상호관련성은 주로 韓·日 불교건축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른바 백제식이라 불리는 一塔一金堂 형식은 北魏代 洛陽 永寧寺와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줄고, 『雲岡石窟과 北魏建築』, 『중국대륙의 문화』 5(한연, pp. 230~235) 또한 고구려의 독자적 가람배치형식이라고 생각되어 온 삼금당 형식이 중국 북조의 一列三龕 혹은 三壁三龕 형식의 석굴사원과 상통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줄고, 『芬皇寺의 伽藍配置와 三金堂形式』, 『분황사의 제조명』(신라문화재학술회의는 문집 제20집, 1997, pp. 219~241)
- 4) 김동현, 「高句麗壁畫古墳의 栱包性格」,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Ⅱ』(1987) 및 전제현, 「안학궁 유적에 대한 연구」, 『안학궁유적과 일본에 있는 고구려관계 유적, 유물』(1985), pp. 3~130(백산자료원 1998년 영인본) 참조. 특히 북한에서는 안학궁성 모형, 대성산성 남문 복원, 정릉사지 복원 등 고구려건축에 대한 모형제작은 물론 실제 복원사업이 고구려고분벽화의 건축표현을 응용하여 이루어졌다.
- 5) 雲岡石窟에 대해서는 梁思成, 『中國建築藝術圖集』(百花文藝出版社, 1999) 및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 MIT Press(1984), 敦煌石窟에 대해서는 蕭默, 『敦煌建築研究』(文物出版社, 1989) 및 馬世長, 「莫高窟窟前殿堂遺址」(文物出版社, 1985. 12)(『강좌미술사』 9호, 1997. 9에 번역문 수록), 麥積山石窟에 대해서는 傅憲年, 「麥積山石窟に見られる古建築」, 『中國石窟 麥積山石窟』(平凡社, 天水麥積山石窟藝術研究所編, 1987) 또는 『傅憲年建築史論文集』(文物出版社, 1998), pp. 103~135) 唐代壁畫墓의 建築圖에 대해서는 일본인 田中談의 「中國壁畫墓の建築圖と唐代初期の建築様式」, 『中國建築史の研究』 등이 대표적인 연구성과이다.
- 6) 拙稿, 「朝鮮後期 佛敎寺院建築의 傳統과 新潮流」, 『미술사학연구』 202호(1994. 6), pp. 127~161.
- 7) 줄고,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제12호(1988), pp. 53~88 및 「발해 상경용천부의 사원건축」, 『강좌미술사』 제14호(1999), pp. 133~147.

발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佛敎東傳 루트상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소련령 중앙아시아, 중국의 서역, 중원과 그 서북쪽 산서성 등지의 불교사원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⁸⁾ 그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 山西省內 고건축을 현지 답사하여 조사하였다.⁹⁾ 그 결과 五臺山 佛光寺 大殿과 應縣木塔이 내외진이중형식의 평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¹⁰⁾ 이밖에도 佛壇의 형식과 불단 위에 봉안된 존상의 종류, 冂字形 內陣壁이나 後佛壁, 외진벽 내측에 그려진 벽화의 장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불전이 禮佛 장소임을 감안하면 불교조각이나 불교회화에 대한 이해없이 내부공간의 쓰임새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며, 나아가서 없어져버린 건물의 복원설계시 내부의 장엄을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중 교섭사를 연표로 재정리하지 않았으며, 교섭을 전제로 하여 공통점을 발견하려 하지도 않았다. 아직은 현존하는 중국건축에 대한 이해와 중국건축사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며, 이해가 심화·축적되고 나면 애써 문헌사적으로 정리된 교섭사를 되풀이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의 제목에서 사용한 ‘古代’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포괄하는 개념인 반면, 중국에서는 원시사회 단계부터 淸末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적절한 두 나라 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 연구의 목적이 한국 古代 불교건축 가운데 불전의 평면형식과 봉안법식, 장엄법식을 구명하려는 과정에서 그 형식과 법식의 기원 문제를 추궁하려는 것이기에 제목에 ‘고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唐(618~907), 五代(907~959 :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후주), 十國(902~979 : 오, 남당, 전촉, 후촉, 남한, 초, 오월, 민, 형남, 북한)뿐 아니라 北宋(960~1126), 遼(907~1125), 金(1115~1234)의 불전, 西夏(1032~1227)의 석굴사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요와 금만 하더라도 渤海 文化의 계승자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대건축을 살피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찰 대상임은 물론이다.

8) 李柱亨, 「간다라 불교사원의 彫像 奉安 樣式과 그 의미」, 『미술사연구』 제8호(1994), pp. 157~198.

9) 2000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경주대학교 대학원생 2명과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내부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었고, 출입구 주변만 제외하고 붉은색 쇠창살로 막아 놓아 내부 관람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불전 내부가 유치장같은 분위기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중국측 문화재 보호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조사는 관찰 정도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최근에 출간된 山西省文物局 中國佛敎文化研究所編, 『山西佛敎彩塑』(中國佛敎文化出版有限公司, 1991)와 柴澤俊 編著, 『山西寺觀壁畫』(文物出版社, 1997) 등의 책에 의존하여 불전 내부의 존상배치와 벽화장엄을 고찰하였다.

10) 필자는 직전 논문(줄고,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제12호(1988), pp. 53~88)에서 山西省 五臺山의 佛光寺大殿(857년)을 단실형식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바 있으나, 이는 잘못이며 내외진이중형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에서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 寶坻縣 廣濟寺 三大士殿(11세기초)이 내외진이중형식이라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자료를 원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기에, 단실형식의 불전으로 수정한다.

II. 唐·五代 佛殿의 莊嚴

佛殿 내부 중앙에 佛壇을 쌓고 그 위에 불·보살상을 비롯한 여러 尊像을 봉안하는 것은 불전이 禮佛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 불전의 안팎을 벽화나 부조로 莊嚴하는 것도 그곳이 부처, 보살, 제자, 신중 등이 상주하는 佛世界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唐代 이전의 불상 봉안과 벽화 장엄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수많은 석굴사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 伽藍內 불전의 내외 장엄을 추정·고찰할 수 있다. 더욱이 唐末부터 金代에 이르기까지 수십 채의 불전이 남아 있어서 봉안과 장엄의 양상을 살펴 시대별 봉안법식 및 장엄법식의 변화마저 읽을 수 있다. 터밖에 남아있지 않은 같은 시기 한국의 불전을 고찰할 때, 중국 불전을 연구하는 것은 그래서 필수적이다.

1. 唐·五代 佛殿의 尊像 奉安

唐 武宗(841~846) 會昌年間の 廢佛(842~845)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불교사원이 폐사되고 소실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唐代 文殊信仰의 중심지로 융성을 극했던 산서성 오대산의 불교사원도 南禪寺를 제외하고는 이때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 그 뒤 唐 宣宗(846~859)의 崇佛 정책에 힘입어 857년에 중건된 佛光寺의 大殿이 오늘날까지 두 번째로 오래 된 불전으로

<표 1> 唐·五대의 佛殿

이름	소재지	건립 시기	위계	정면(칸)	지붕	월대유무
南禪寺 大殿	五臺	唐 建中 3년(782)	主殿	3	팔작	有
佛光寺 東大殿	五臺	唐 大中 11년(857)	主殿	7	우진각	무
天臺庵 正殿	平順	唐	主殿	3	팔작	무
龍門寺 西殿	平順	五代 唐 同光3年(925)	配殿	3	맞배	무
大雲院 彌陀殿	平順	五代 晉 天福5年(940)	主殿	3	팔작	무
鎮國寺 萬佛殿	平遙	五代 北漢 天會7年(963)	主殿	3	팔작	무

* 柴澤俊 편저, 『朔州 崇福寺』(文物出版社, 1996), pp. 52~55 참조.

남아있게 되었다.11) 산서성 平遙의 鎮國寺 萬佛殿은 十國의 하나인 北漢의 天會7년(963)에 건립된 불전이다. 唐末五代의 佛殿으로 알려진 건물은 이밖에도 3채가 더 있어 모두 6채가 남아 전한다.(표 1)

여기서는 세 불전을 중심으로 존상 봉안과 내외 장엄을 살펴보려 한다. 다음 <표 2>는 세 불전의 평면형식, 內陣壁의 유무와 형식, 불단의 형식 및 재료, 봉안 존상의 종류와 재료, 천정과 지붕형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2> 唐·五代 佛殿의 尊像 奉安

내역 이름		建寺年代	建殿年代	現存年代	평면형식 (정면×측면)	內陣壁	佛壇	봉안 존상	천정·지붕
南禪寺	大殿	미상	唐 建中 3년 (782)	左同	單室 (3×3)	무	凹形 壇砌	17尊(唐 建中 3년塑像), 석가불, 문수·보현	연등천정 팔작지붕
佛光寺	東大殿	北魏 孝文帝 (471-499)	唐 大中 11년 (857)	左同	內外陣二重 (7×4)	11字形 扇面牆	사각형 壇砌	36尊(唐 大中 11년 塑像), 석가·아미타·미륵·문수·보현 등	平暗 우진각지붕
鎮國寺	萬佛殿	北漢 天會7년 (963)	左同	左同	단실 (3×3)	무	정사각형 壇砌	11尊(北漢 天會 7년 塑像), 석가불이 주존	연등천정 팔작지붕

1) 單室形式 佛殿의 존상 봉안

평면형식상 南禪寺 大殿(圖 1.2.3.4.5.6)과 鎮國寺 萬佛殿(圖 7.8.9.10)은 單室形式이면서 내부 기둥과 후불벽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엿보인다.12) 또 불단은 각각 凹形, 正四角形이라는 형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내부공간의 중심에 놓여 있어서 중심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붕과 천정도 같고, 정면 어칸에 판장문, 좌우 협칸에 창을 낸 구성방식도 비슷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진국사 만불전에서만 배면 어칸에 문을 두고 있다는 사실 정도이다. 이로써 진국사 만불전이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목조건물인 남선사 대전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안된 존상도 180여 년의 시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11) 王志勇 主編, 『五臺山文物集錦』(山西人民出版社, 2000. 7).

12) 蕭默, 「敦煌莫高窟의石窟形式」,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二』(敦煌文物研究所編, 日本 平凡社), p. 222. 남선사 대전에 신면장이 없기는 하나 본존불상의 광배가 천정까지 연결되고 있는 모습에서 배병식 석굴사원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



圖 1. 南禪寺 전경



圖 3. 南禪寺 大殿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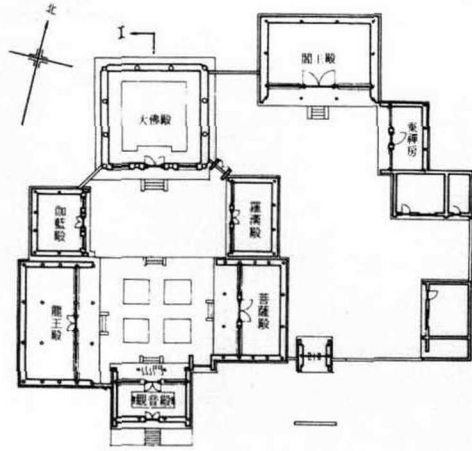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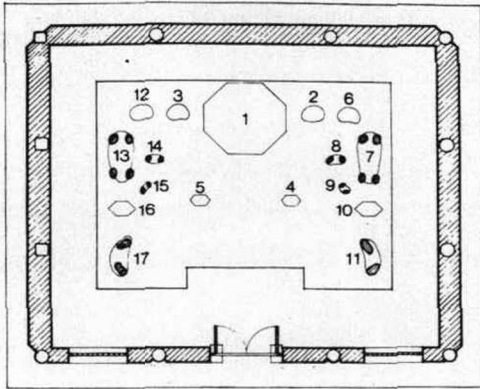


圖 2. 南禪寺 배치도



圖 4. 南禪寺 大殿 내부



1	明間	釋迦佛	4.61米	10	脅士	2.50米	
2		迦葉	0.18米	11	天王	2.50米	
3		阿難	0.18米	12	西次間	脅士	2.00米
4.5		供養菩薩	1.56米	13		文殊菩薩	2.50米
6	東次間	脅士	2.00米	14		拂霖	1.36米
7		普賢菩薩	2.50米	15		童子	0.78米
8		窣堵	1.36米	16		脅士	2.50米
9		童子	0.78米	17		天王	2.50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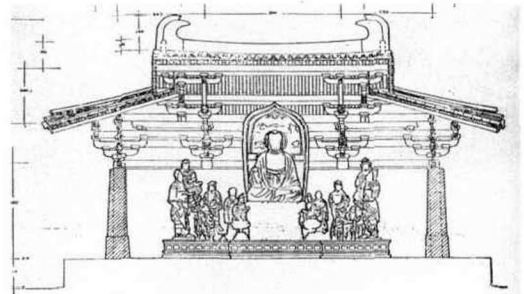


圖 6. 南禪寺 大殿 횡단면도

圖 5. 南禪寺 大殿 존상봉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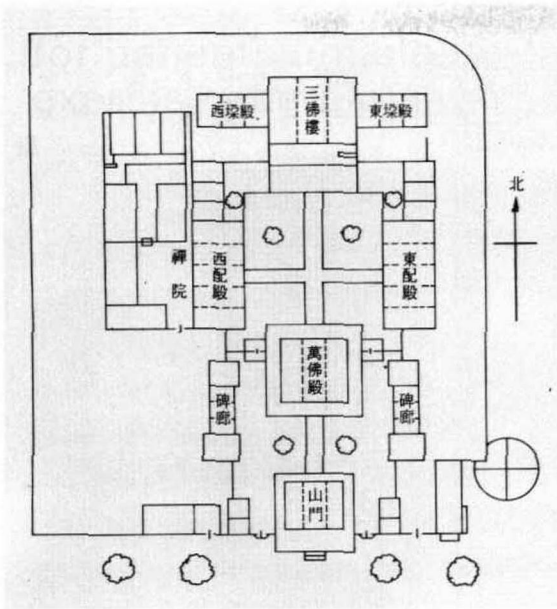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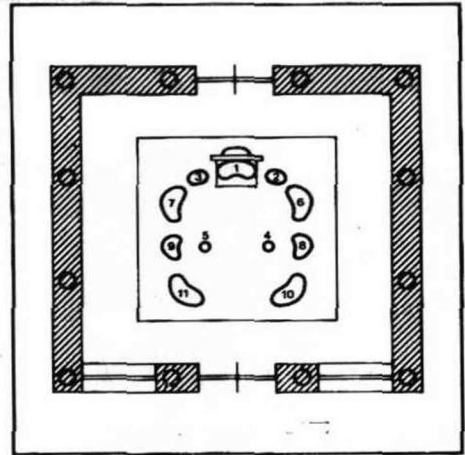


圖 7. 鎮國寺 배치도



1	明間	釋迦佛	4.71米
2		迦葉	3.07米
3		阿難	3.07米
4		供養童子	1.46米
5		供養童子	1.40米
6.7	東西次間	脅士坐像	2.90米
8.9		脅士立像	2.30米
10.11		天王	2.30米

圖 8. 鎮國寺 萬佛殿 존상봉안도



圖 9. 鎮國寺 萬佛殿 정면



圖 10. 鎮國寺 萬佛殿 내부

釋迦 獨尊佛을 중심으로 협시보살, 가섭과 아난, 공양자, 천왕 등을 좌우 대칭의 위치에 둥글게 벌려 세우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는 중국의 初唐代에 열린 敦煌 제205굴이나 榆林窟의 中唐 제25굴(전후이실형식) 같은 경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표 4). 즉, “伏斗式 천정을 가지고 있고, 4벽에

佛龕을 뚫지 않았으며, 굴 중앙의 方壇 위에 塑像을 안치하였다. 이때 背屏은 설치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背屏이 더해지면 背屏式 石窟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¹³⁾ 그런데 경주 토함산 석굴암의 주실에 圓形 佛壇을 설치하고 그 위에 불상을 봉안한 점, 그 둘레 벽체에 부조상을 원형으로 배열한 점 등은 남선사나 진국사의 두 불전의 존상배치와 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주목된다.

2) 內外陣二重形式 佛殿의 존상 봉안

佛光寺 東大殿(圖 11,12,13,14)은 규모도 훨씬 크고 內陣에 門字形 扇面牆을 설치하였으며, 지붕은 우진각, 천정은 平暗(우물천정의 하나로 소란의 틀이 두껍고 깊이가 있는 것)인 점에서 앞의 두 불전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다. 봉안된 존상도 석가, 아미타, 미륵의 三世佛을 중심으로 협시보살, 제자, 공양보살, 천왕 등을 가로방향으로 길게 배치하고 있어서 위 두 불전의 존상배치와 차이를 보인다.¹⁴⁾

<표 3> 한국 고대 불전의 존상 봉안

이름	내역	창건	평면 형식	불단	봉안 존상	천정	비고
황룡사 중금당		584년	內外陣二重	사각형	19尊, 석가장육삼존·십대제자공양보살 (혹은 천인)·사천왕	미상	3면 장벽 門字形扇面牆
토함산 석굴암		750-781	前後二室	무	30尊, 석가·십일면관음·십대제자· 문수·보현·범천·제석천· 사천왕·인왕·팔부중	半球形 돔	圓形龕壁
홍륜사금당		8세기말	미상	미상	11尊, 미륵, 신라 십성	미상	
상경유천부 제1호절터금당		8-9세기	內外陣二重	凹形	9尊, 불, 협본존 2, 협시보살 2, 시동 2, 신장 2 *①	미상	附 兩翼舍 前面 雙階
상경유천부 제9호절터금당		8-9세기	內外陣二重	凹形	5尊, 불, 협본존 2, 협시 2* ②	미상	
법륜사금당		7세기	單室	사각형		覆斗	外陣壁 內面 壁畫

* ①, ②는 주영현, 『발해문화』(사회과학원, 1971) 참조.

13) 蕭默, 앞 글, p. 222.

14) 五代 시기의 건물인 평순현 大雲院 彌陀殿은 자료 부족으로 건축적 특징을 알 수 없으나, 벽화를 소개하는 책을 통하여 扇面牆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 조사를 요한다.(『山西寺觀壁畫』, pp. 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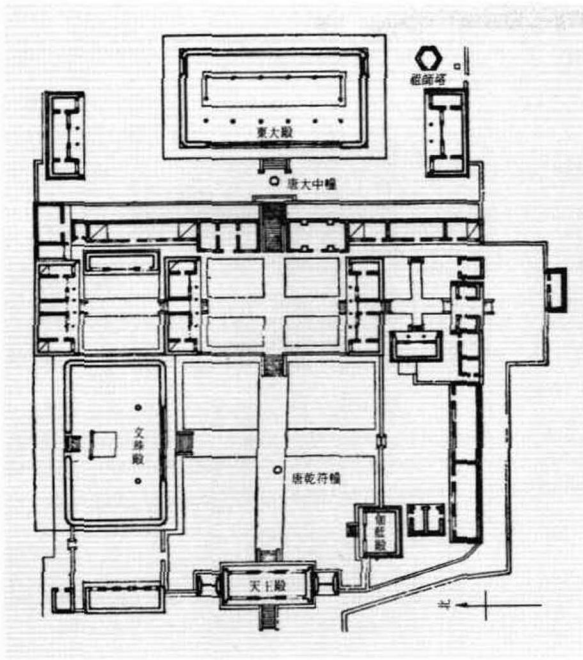


圖 11. 佛光寺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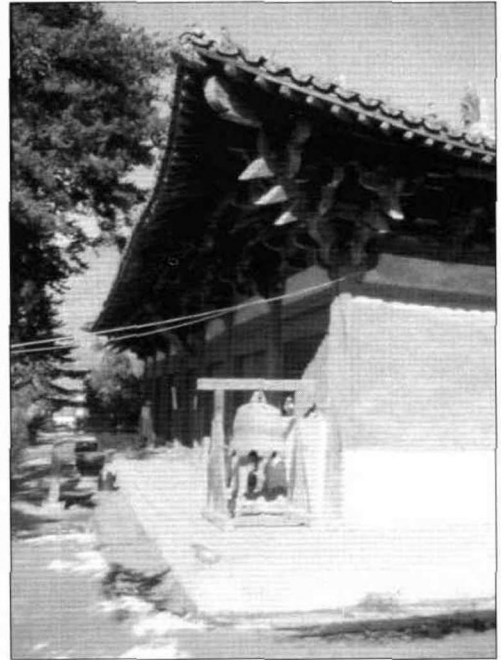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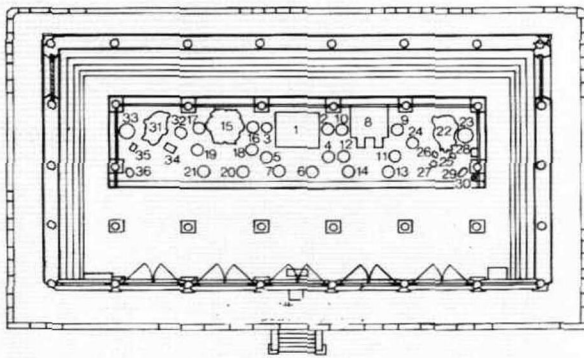


圖 12. 佛光寺 東大殿 정면



1	明間	釋迦佛	5.30米	22	南梢間	普賢菩薩	3.50米
2		迦葉	2.80米	23.24		脅士	2.95米
3		阿難	2.70米	25		韋馱天	1.58米
4.5		脅士	2.95米	26		療養	1.61米
6.7		供養菩薩	1.30米	27		童子	1.08米
8	南次間	彌勒佛	5.30米	28		寧公遇	1.00米
9.10		脅士	2.95米	29		天王	4.10米
11.12		脅士	2.95米	30		顯藏和尚	1.87米
13.14		供養菩薩	1.13米	31	北梢間	文殊菩薩	3.50米
15	北次間	阿彌陀佛	5.30米	32.33		脅士	2.95米
16.17		脅士	2.95米	34		拂霖子	1.34米
18.19		脅士	2.95米	35		童子	1.20米
20.21		供養菩薩	1.30米	36		天	4.10米

圖 13. 佛光寺 東大殿 존상방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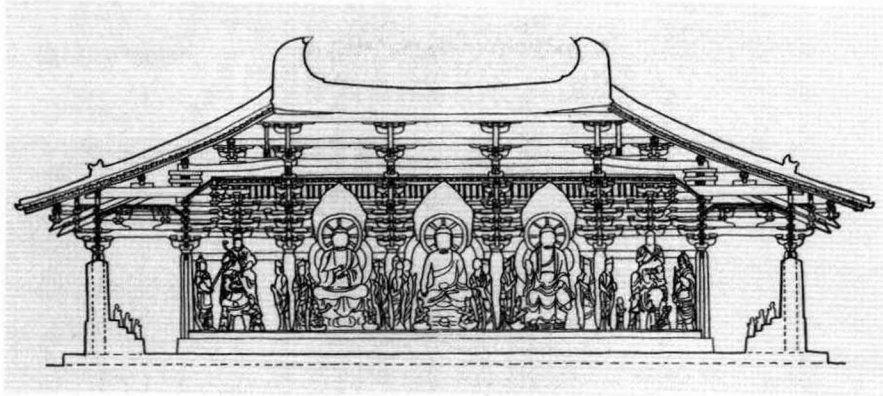


圖 14. 佛光寺 東大殿 횡단면도

<표 4> 中國 內外陣二重形式 佛殿과 背屏式 石窟寺院의 비교

이름		개요	건립 시기	평면 형식	內陣壁	불단	천정	甬道	규모
佛光寺 東大殿			晚唐 857	內外陣 二重	門字形 扇面牆	사각형	平暗	나한상 봉안	7×4
隆興寺	摩尼寶殿		北宋皇祐4년 (1052)	內外陣 二重	門字形 扇面牆	사각형	藻井	관음상	7×5
榆林窟	제25굴		中唐	前後二室	무	사각형	覆斗式	전면 연도	
敦煌石窟	제205굴		初唐	單室	무	사각형	覆斗式	전면 연도	
	제196굴		晚唐 893년경	單室	무	사각형	覆斗式	전면 연도	
	제98, 제100, 제108, 제146굴		五代	單室	背屏	凹形	覆斗式	전면 연도	
	제55, 61굴		宋初	單室	背屏	凹形	覆斗式	전면 연도	
	제263굴		北魏 初創 晚唐 改建, 西夏 改建	單室	背屏	凹形	人字披		

* 돈황 제263굴은 원래 中心塔柱式石窟이었던 것을 西夏때(1032-1227) 背屏式, 凹形 佛壇으로 고친 것

그런데 불광사 동대전과 동일한 內外陣二重 평면형식을 가지고 있고,¹⁵⁾ 장방형 불단 위에 석가삼존상을 봉안하고, 그 주위에 공양보살, 제자, 천왕 등 16尊像을 좌우대칭의 위치에 벌려 세웠던 불전터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으니, 新羅 慶州 皇龍寺 中金堂(584년, 圖 39)이 그것이다. 황룡사 중금당(圖 39)은 현재 터만 남아있지만 발굴조사 결과 내진부(7×2)에서 冂字形 牆壁이 설치되었던 흔적이 확인되어 내외진이중 평면형식의 효시로 여겨지고 있다.¹⁶⁾

불광사 동대전 내진부(5×2)의 장벽이 冂字形 扇面牆이기는 하나 측면 1칸 반만 장벽으로 막고(이중 반칸은 판장벽) 반칸은 개방하고 있는데 반하여, 황룡사 중금당에서는 오히려 내진부 전면의 좌우 퇴칸과 그 옆 협칸까지를 벽체로 막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보다 폐쇄적이었던 內陣壁이 唐末에 전면과 측면 일부를 개방한 형태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표 3) 같은 9세기에 구례 화엄사 장육전(현 각황전, 886년경), 영일 법광사지 금당(9세기 중엽) 등에서 내진 전면 어간에 문을 설치했던 신방석이 남아 있어서 내진벽이 4면을 감싸고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합천 靈巖寺址 金堂(圖 15)만 내진부(1×1) 전면을 개방하고 있어서 佛光寺 東大殿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영암사지 금당의 조성연대를 9세기 중엽경이나 그 이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⁷⁾

한편 발해 상경용천부 제1호절터와 제9호절터의 金堂(圖 16)은 모두 내외진이중 형식인 동시에 凹形 불단을 가지고 있어서 흥미롭다.¹⁸⁾ 중국의 경우(표 4) 요형 불단의 최초 예는 남선사대전에, 내진벽의 효시는 불광사대전에 남아있는데, 발해 8~9세기의 금당에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석굴사원의 경우에도 <표 4>에서 보이듯, 凹形佛壇과 背屏을 결합한 형식이 五代(돈황 막고굴 제55굴, 圖 17)부터 宋初(돈황 막고굴 제98굴, 圖 18)에 걸쳐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15) 장헌덕, 앞 논문(65, pp. 82~83)에서도 불광사동대전과 황룡사중금당의 내부구성이 유사함을 지적하였는데 다만, 황룡사중금당의 둘레에는 차양칸이 설치되어 있어서 평면유형을 분류할 때 다르게 명명하였다. 즉, 황룡사중금당은 '雙柱柱網周匝副階須彌壇中心形'으로, 불광사동대전은 '雙柱柱網須彌壇中心形'으로 명명하고 있다.

16) 졸고,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제12호(1998), pp. 72~73.

17) 졸고, 앞글, 영암사지 금당의 조성시기는 9세기로 짐작되고 있을 뿐이어서, 발굴조사를 통한 연대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18) 졸고, 「渤海 上京 龍泉府의 寺院建築」, 『강화 미술사』 제14호(1999, 12), pp. 133~148.

19) 蕭默, 앞 글, pp. 221~222, 背屏式石窟에 관한 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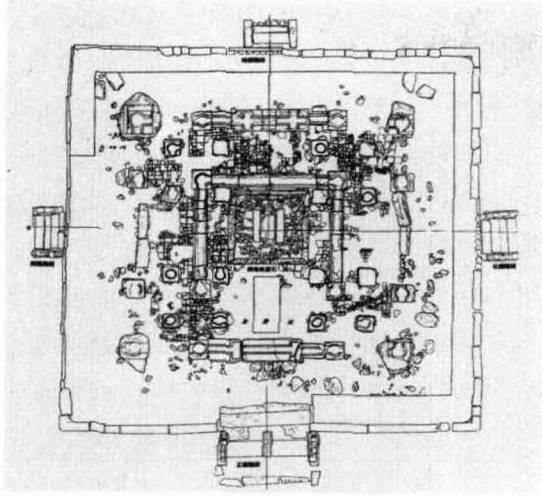


圖 15. 합천 靈巖寺址 金堂 발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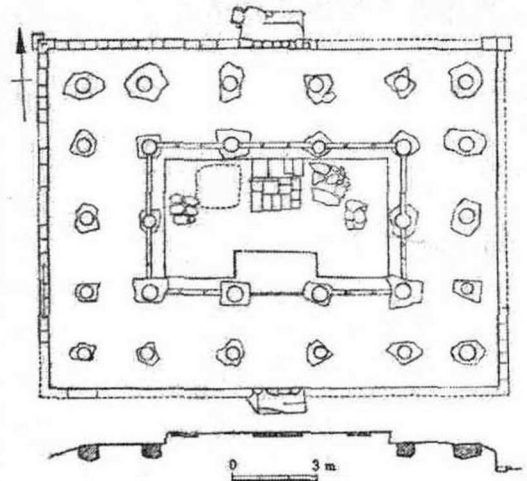


圖 16. 渤海 상경 용천부 제9호 절터 금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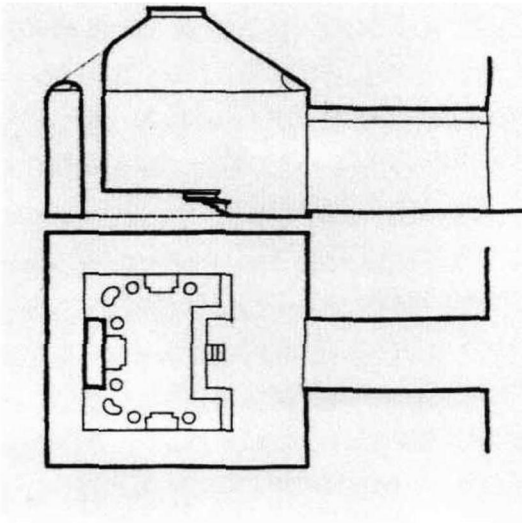


圖 17. 敦煌 莫高窟 窟 제55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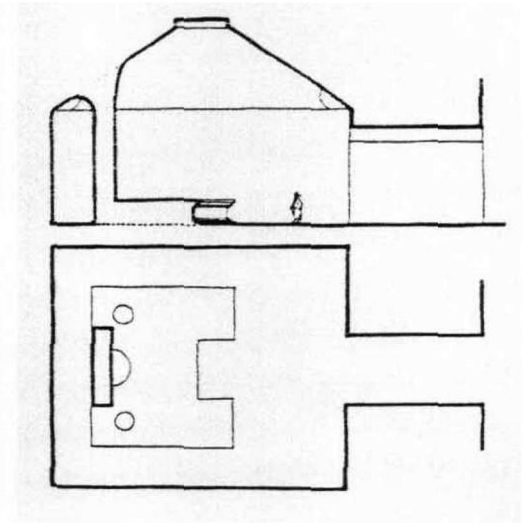


圖 18. 敦煌 莫高窟 窟 제98굴

2. 唐·五代 佛殿의 壁畫 莊嚴

禮佛에 적합한 환경으로서의 불전 내부는 佛壇과 尊像 配置, 그리고 불단 상부의 天井과 이 모든 것을 둘러싼 벽체에 의하여 그 분위기가 좌우되지만, 이에 못지 않게 周壁의 壁畫나 공포대의 벽화 및 조각에 의하여 더욱 장엄한 佛世界의 모습으로 조성된다.

南禪寺 大殿의 내외벽에는 벽화가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반면에 鎮國寺 萬佛殿(圖 10)의 外陣壁 內側에는 비록 후대의 것이지만 周壁의 腰壁 上部와 栱包壁에 一萬佛이 坐佛 형태로 그려져 있어서 아쉬운 대로 불세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大雲院 彌陀殿의 경우 건물 건립 당시인 五代에 제작된 벽화를 많이 남기고 있는데, 내부에

<표 5> 佛光寺 東大殿(西向)의 壁畫莊嚴 : 栱眼壁 [栱包壁] 에만 남아 있음

건물내 위치	공포벽 위치	벽화 유무	벽화의 주제	『山西寺觀壁畫』 수록 도판 번호	비고(한국 용어)	
前槽 (전면)	南盡間	-			우퇴칸	
	南梢間	-			제2우협칸	
	南次間	-			제1우협칸	
	明間	-			어칸	
	北次間 外側	有	북: 관세음보살도 중: 아미타설법도 남: 대세지보살도	도. 4 도. 3 도. 5	제1좌협칸	
	北梢間	有	미확인		제2좌협칸	
	北盡間	-			좌퇴칸	
北內槽	前間 바깥쪽	有	諸菩薩衆	도. 6, 7, 8, 9	앞뒤 4칸 공포벽 바깥쪽에 벽화 잔존	
南內槽	前間 바깥쪽	有	諸菩薩衆	도. 12		
後槽 (배면)	南盡間	-			우퇴칸	
	南梢間	有	미확인		제2우협칸	
	南次間	-			제1우협칸	
	明間	-			어칸	
	北次間	-			제1좌협칸	
	北梢間 外側	-			도. 10, 11	제2좌협칸
	北盡間	-				좌퇴칸
佛座 뒷벽	明間	有	북: 비사문천왕 남: 鎮妖	도. 13 도. 14		
	明間					

* 『山西寺觀壁畫』, pp. 15~17의 설명, pp. 160~163의 도판, pp. 295~296의 도판설명에 근거하여 작성.

扇面牆을 갖추고 있어서 그 정면 동서 모퉁이와 배면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도 등을 그리고 있다. 또 동벽과 북벽 일부에도 維摩淨土變相圖, 諸菩薩圖, 飛天圖 등을 남기고 있어서 불세계를 彷彿케 할만큼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²⁰⁾

佛光寺 東大殿의 경우 아쉽게도 周壁이나 扇面牆 어디에도 벽화가 남아 있지 않아서 내외진이중형식 불전의 장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다행히 건물 내부의 공포벽과 佛座 뒷벽에 唐代에 그려진 벽화가 잘 남아 있다(표 5). 그런데 공포벽이 장방형으로 긴 탓도 있겠으나, 진국사 만불전에서처럼 좌불을 문양처럼 배치하지 않고, 설법도, 보살도 등을 그린 점, 불좌 뒷 벽에 천왕, 요괴, 인물도 등을 남기고 있는 점, 이 그림들이 돈황석굴에서 보이는 唐代 그림의 풍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²¹⁾ 중국 당·오대의 불전에서 보이는 이러한 벽화 장엄과 석굴사원의 벽화 장엄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고대불전의 복원시 내부 장엄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Ⅲ. 宋, 遼, 金代 佛殿의 莊嚴

앞에서 唐末 五대의 불전 3채를 중심으로 불전의 존상 봉안과 벽화 장엄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 이어진 宋·遼·金代의 불전 8채를 대상으로 하여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조성된 중국 불전의 장엄을 고찰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고려중엽 이후 조선초기까지의 불전은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宋, 遼, 金代 佛殿의 尊像 奉安

<표 6>에서는 북송대 1채, 요대 3채, 금대 4채의 건물에 대하여 평면형식, 내진벽의 형식과 유무, 불단의 형태와 재료, 봉안존상의 시대와 종류, 천정과 지붕 형식 등을 분석·정리하였다. 우선 평면 형식을 보면 융흥사 마니보전(1052년)과 응현목탑(1056년)이 내외진이중형식이고, 나머지 불전 6채는 모두 단실형식이다.

1) 內外陣二重形式 佛殿의 尊像 奉安

融興寺 摩尼寶殿(圖 19,20,21,22)은 겉보기에는 2층건물 같지만 실은 1층 건물인데, 사방

20) 대운원 미타전의 벽화에 대해서는 『山西寺觀壁畫』, pp. 17~18, pp. 164~167, pp. 296~297 등에도판과 함께 설명이 실려 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자료는 구하지 못하여 자세하게 논하지 못하였다.

21) 『山西寺觀壁畫』, pp. 15~17의 설명, pp. 160~163의 도판, pp. 295~296의 도판설명 참조.

에 낮은 지붕의 행각을 두르고 사면 중앙에 익각을 덧달아낸 亞字形 평면형식의 건물이다. 이 가운데 불상을 봉안한 본체는 5칸×5칸 규모로, 행각 지붕 위로 한 층 더 올린 듯한 지붕을 높이 씌웠는데 그 안에 3칸×3칸 규모의 내진부를 두고, 내진벽을 3면에 冂字形으로 둘러 내외진이중구조의 평면을 구성하였다. 내진 안에는 사각형 석조불단을 설치한 다음 석가삼존상을 봉안하였다. 또 扇面牆 배면에 소조관음보살상을 장엄하고 있는 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조선초 15세기 강진 無爲寺 極樂殿 後佛壁 이면의 관음보살 벽화가 이미 11세기부터 宋에서 성행한 형식임을 여기서 알 수 있다.



圖 19. 隆興寺 摩尼寶殿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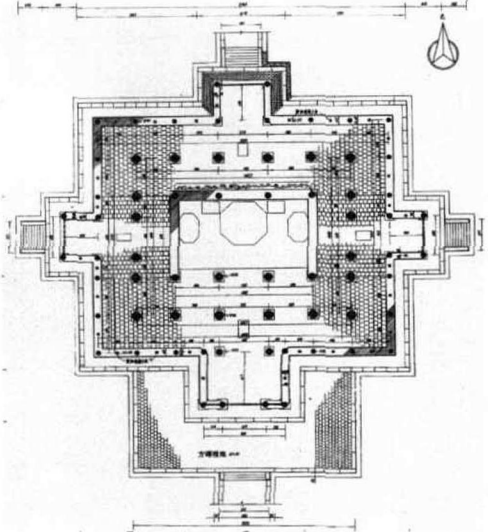


圖 20. 隆興寺 摩尼寶殿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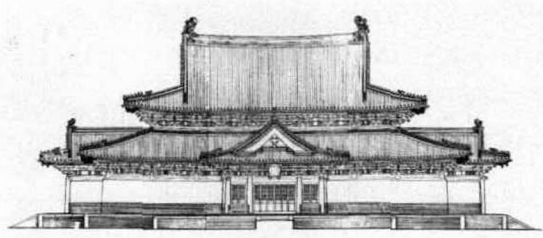


圖 21. 隆興寺 摩尼寶殿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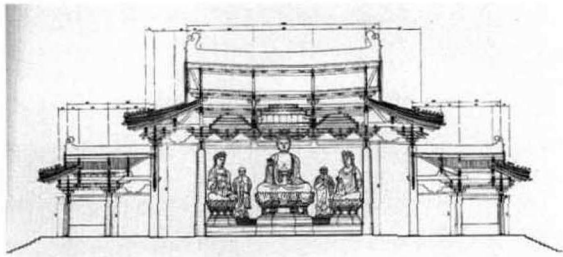


圖 22. 隆興寺 摩尼寶殿 횡단면

<표 6> 宋·遼·金代 佛殿의 尊像 奉安

사원 이름	建寺年代	建殿年代	평면형식 (정면×측면)	내진벽	佛壇	봉안 존상	천정과 지붕	
隆興寺 摩尼寶殿	隋 開皇 6년(586)	北宋 皇祐 4년(1052)	內外陣 二重 (본채만 5×5)	卍字形 扇面牆	사각형 石造	5尊, 석가·가섭·아난 3존은 北宋代 소장 문수·보현 2존은 明代 소장, 배면에 관음소상	河北正定縣 藻井 팔작지붕	
佛宮寺 木塔		遼 清寧 2년 (1056)	內1층 111층 內外陣 二重	[]形 선면장	팔각형	獨尊, 석가불	응현목탑 1층천정은 藻井	
佛光寺 文殊殿	北魏 孝文帝 (471-499)	金 天會 15년 (1137)	單室 (7×4)	무	정사각형	7尊(元代 塑像)	연등천정 맞배지붕	
華嚴寺	薄伽教藏殿 遼 清寧8년? (1062)	遼 重熙 7년 (1038)	단실 (5×4)	무	凹形 磚砌	29尊(遼 重熙 7년 塑像), 釋迦佛會 7尊, 燃燈佛會 11尊, 彌勒佛會 11尊/ 벽장 38칸	우물천정, 藻井 팔작지붕	
		金 天眷 3년 (1140)	단실 (9×5)	무	사각형 磚砌	31尊(明代 塑像), 5方佛 6협시보살, 諸天 20尊	원래 연등천정, 明代에 반자 가설, 우진각지붕	
善化寺	大雄寶殿 三聖殿	唐 開元 年間	遼代 11세기	단실 (7×5)	무	사각형	33尊(遼代 塑像), 5방불 가섭, 아난, 2협시보살, 諸天 24尊	우진각지붕 연등천정, 藻井
			金 天會6년 ~ 皇統3년 (1128-1143)	단실 (5×4)	一字形 扇面牆	사각형	5尊(明代 塑像), 비로사나불, 문수·보현 등	우진각지붕
崇福寺 彌陀殿	唐 高宗 德麟 2년 (665)	金 皇統 3년 (1143)	단실 (7×4)	무	凹形	9尊(金代 塑像), 아미타불, 관음·대세지보살, 4협시보살, 2금강	연등천정 팔작지붕	

한편, 應縣木塔(圖 23,24)은 佛殿이 아니라 木塔이기는 하나 心柱를 세우지 않고 層別로 결구하였기 때문에, 각 층이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1층은 구조상의 이유로 내외에 벽체를 이중으로 세워 내외진이중 평면을 이루고 있다. 내진벽 안쪽에 거대한 독존불상을 봉안하고 불벽화를 그리는 등 내외진이중 형식 불전과 동일한 장엄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2, 3, 4, 5층에도 불단 위에 여러 존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하고 있음은 물론이다.²²⁾



圖 23. 應縣 佛宮寺 木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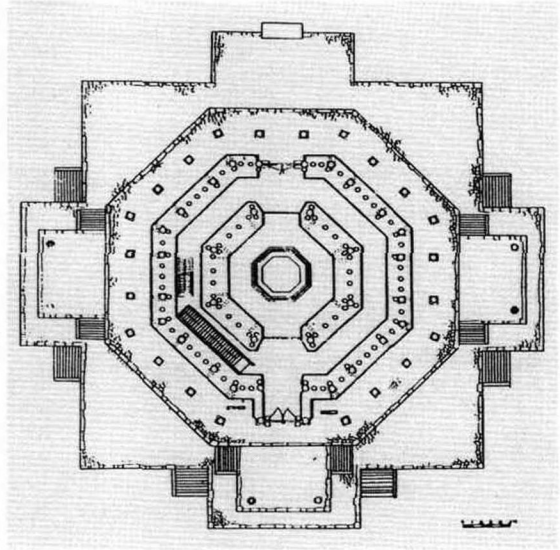


圖 24. 應縣 佛宮寺 木塔 1층 평면도

2) 單室形式 佛殿의 尊像 奉安

나머지 6채는 모두 단실형식 불전인데 규모가 매우 커서 5칸×4칸이 2채, 7칸×4칸이 2채, 7칸×5칸이 1채, 9칸×5칸이 1채이다. 이 가운데 불단 뒤에 後佛壁(一字形 扇面牆)을 둔 예는 善化寺 三聖殿(1128~1143, 圖 25.26)뿐이고 나머지 5채는 후불벽을 두지 않았다.²³⁾ 불단은 華嚴寺 薄伽教藏殿(1038, 圖 27.28)과 崇福寺 彌陀殿(1143, 圖 29.30.31.32.33.34)만 凹形이고 나머지 4채는 모두 사각형이다. 凹形 佛壇은 앞 시기에 남선사 대전, 돈황 제 99, 100, 108, 146굴(이상 五代), 제55, 61굴(이상 宋初), 제263굴(西夏 改建) 등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 발해 상경용천부의 제1호, 제9호 절터 금당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凹形 佛壇은 적어도 唐代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널리 발해에까지 전해졌다가, 훗날 오대,

22) 陳明達 編著, 『應縣木塔』(文物出版社, 1996).

23) 蕭默, 앞 글, p. 222. 돈황 막고굴 석굴형식의 시대적 변천을 논한 글에서 蕭默은 背屏式 석굴사원이 五代·宋初에 유행하였으며, 이는 佛殿에서 선면장을 둔 형식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선화사 삼성전의 후불벽은 물론이고, 화엄사 박가교장전 본존불상의 천정까지 우뚝 서있는 광배까지도 배병식 석굴사원과 통하는 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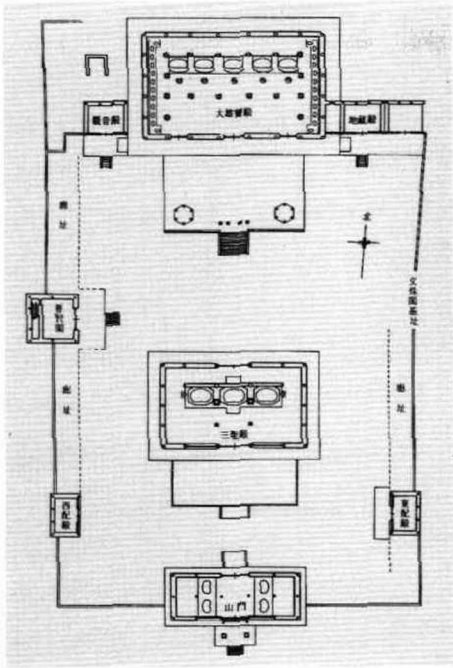


圖 25. 善化寺 배치도



圖 26. 善化寺 三聖殿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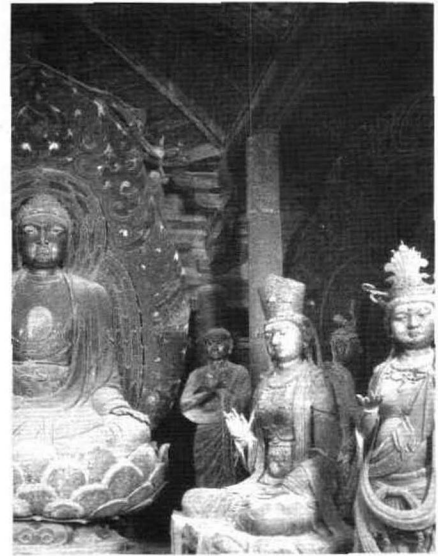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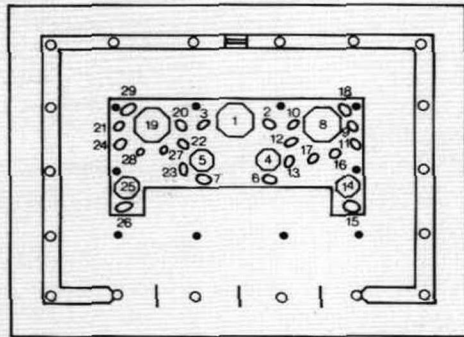


圖 28. 華嚴寺 薄伽教藏殿 내부



釋迦佛全堂	明間	14	觀世音菩薩	4.60米
1 釋迦佛	5.35米	15	天王	3.30米
2 迦葉	3.30米	16,17	供養菩薩	1.50米
3 阿難	3.30米	18	天王	3.30米
4 文殊菩薩	3.10米	彌勒佛全堂	南次間	
5 殊菩薩	3.10米	19	彌勒佛	5.21米
6,7 普賢菩薩	3.10米	20,21	彌勒佛	3.50米
燃燈佛全堂	北次間	22	普賢菩薩	3.60米
8 燃燈佛	5.21米	23	普賢菩薩	3.40米
9 迦葉	3.10米	24	普賢菩薩	3.65米
10 阿難	3.30米	25	地藏菩薩	4.70米
11 普賢	3.20米	26	天王	3.30米
12 普賢	3.50米	27,28	供養菩薩	1.40米
13 普賢	3.00米	29	天王	3.30米

圖 27. 華嚴寺 薄伽教藏殿 존상반도



圖 29. 崇福寺 彌陀殿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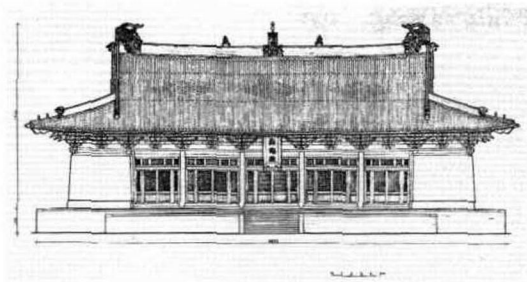


圖 30. 崇福寺 彌陀殿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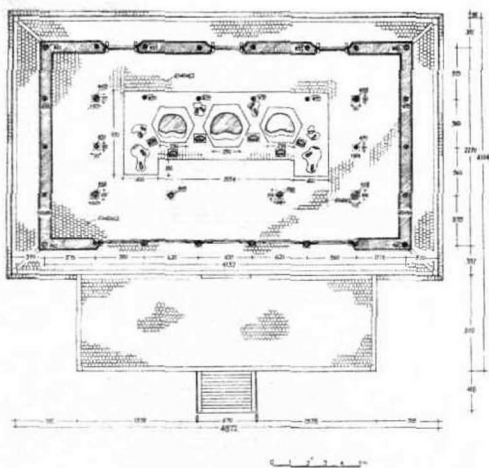


圖 31. 崇福寺 彌陀殿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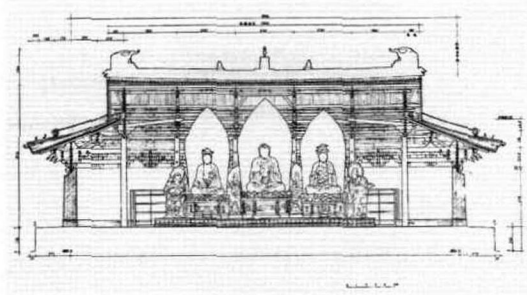


圖 32. 崇福寺 彌陀殿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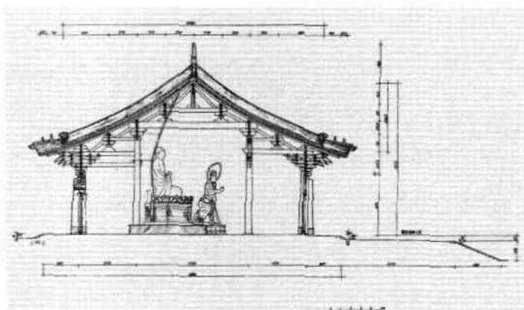


圖 33. 崇福寺 彌陀殿 종단면도



圖 34. 崇福寺 彌陀殿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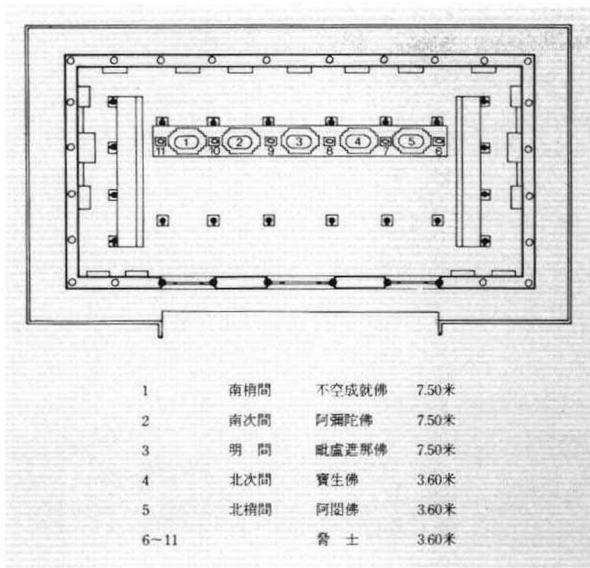


圖 35. 華嚴寺 大雄寶殿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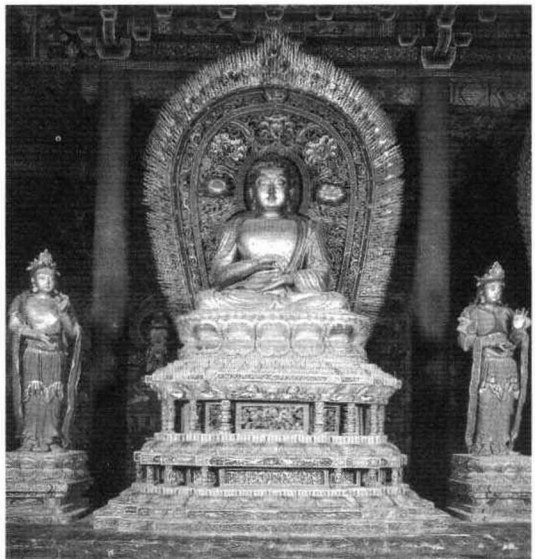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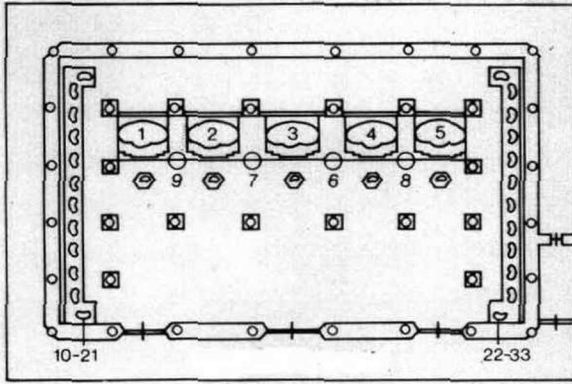


圖 36. 華嚴寺 大雄寶殿 내부

송, 서하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사각형 불단은 큰 규모의 건물에 채택되어 華嚴寺 薄伽教藏殿(1038)과 華嚴寺 大雄寶殿(1140, 圖 35,36), 善化寺 大雄寶殿(遼, 11세기, 圖 37,38) 등에서 각각 29尊, 5方佛 6菩薩, 5方佛 2挾侍 2弟子像이 불단 위에 像設되었다. 또 좌우 벽에도 단을 가설하여 24天(선화사 대응보전), 20天(화엄사 대응보전) 등 天人을 배치한 것이 특이하다. 한편 조정으로 천개를 삼은 경우가 4채나 있어서 주목된다.

지붕은 우진각이 3채, 팔작이 3채, 맞배가 1채여서 불전에 우진각과 팔작이 많이 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나라 고려 중엽부터 말기까지의 불전과 비교해 보면, 맞배지붕이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응전, 부석사 조사당 등에 채택된 반면, 팔작지붕은 부석사 무량수전 뿐이며, 우진각지붕은 한 채도 없는 점과 크게 달라서 주목된다. 고려 중엽 이래로 主佛殿의 外觀이 맞배지붕과 팔작지붕 두 유형으로 결정되어 온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唐 이래로 배전을 제외하고는 우진각지붕과 팔작지붕으로 불전의 이미지를 조성해 온 것이다.²⁵⁾

24) 宋·遼·金代의 凹形佛壇 사용 예는 이밖에도 永壽寺 雨花宮(宋), 華嚴寺 海會殿(遼), 法興寺 前殿(宋), 奉國寺 七佛殿(遼), 岩山寺 文殊殿(金) 등이 있다.(『朔州 崇福寺』, p. 76 참조)
 25) 물론 이러한 고찰은 더 많은 수의 불전을 고찰하여 통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를 요한다.



1	西梢間	不空成就佛	4.45米
2	西次間	阿彌陀佛	4.45米
3	明間	毗盧遮那佛	4.45米
4	東次間	寶生佛	4.45米
5	東梢間	阿閼佛	4.45米
6	梁下	迦葉	2.80米
7		阿難	2.80米
8,9		脅士	3.65米
10~21	西盡間	廿四諸天之十二	3.50~3.80米
22~33	東盡間	廿四諸天之十二	3.50~3.80米

圖 37. 善化寺 大雄寶殿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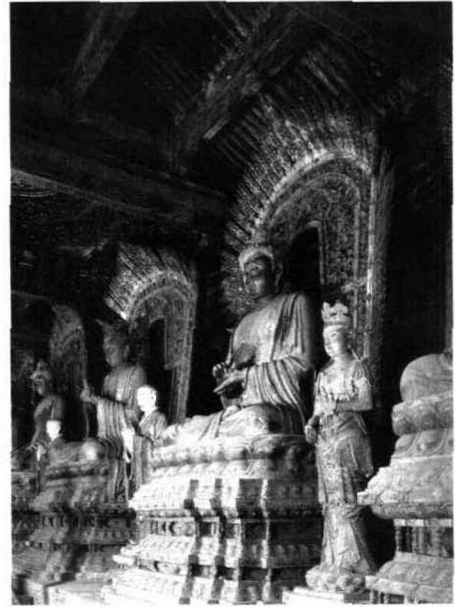


圖 38. 善化寺 大雄寶殿 내부

2. 宋, 遼, 金代 佛殿의 壁畫 莊嚴

위 8채 가운데 벽화의 장엄이 잘 남아있는 경우는 용흥사 마니보전, 응현목탑, 승복사미타전 등 3채뿐이다. 각각 건물 건립연대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북송과 금의 불전 벽화장엄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

1) 隆興寺 摩尼寶殿의 壁畫 莊嚴

용흥사 마니보전(북송 황우 4년, 1052)은 亞字形 평면의 중심부에 3칸×3칸의 내진부를 두고 있는데, 3면을 둘러싼 내진벽(內槽壁, 扇面牆)의 안팎을 <표 7>과 같은 벽화로 장엄하고 있어서 화려했던 북송대 불전의 일면을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 이 사례는 唐 佛光寺 東大殿 선면장의 벽화장엄을 추측케하는 자료인 동시에, 우리나라 황룡사 중금당을 비롯한 내외진이중 형식 불전의 내부 장엄을 복원할 때 참고해야 할 유력한 자료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내부 외진벽의 둘레에는 釋氏源流圖를 동→남→서→북 순으로 시계바늘 방향

<표 7> 隆興寺 摩尼寶殿 內槽壁의 장엄

	벽면의 위치		벽화의 主題	『正定隆興寺』 계재 도판 번호	비 고
	內 槽 壁	외벽면	북면(Ⅰ)	觀音菩薩(泥塑)	도 47, 48, 49
동면(Ⅱ)			東方淨琉璃世界	도 50, 51	내진 향우측벽 외면
서면(Ⅲ)			西方勝景	도 52	내진 향좌측벽 외면
내벽면		동면(Ⅳ)	12圓覺菩薩	도 53	내진 향우측벽 내면
		서면(Ⅴ)	8大菩薩	도 54	내진 향좌측벽 내면
		남면(Ⅵ)	?		미확인

<표 8> 隆興寺 摩尼寶殿 外槽와 抱廈의 벽화 장엄

	內壁 위치		벽화의 主題	벽화의 번호	『正定隆興寺』 계재 도판 번호
	外 槽 壁	東檐牆	北段	釋氏源流	1, 2, 3, 4
南段			釋氏源流	5, 6, 7	도 63, 64, 65
南檐牆		東段	釋氏源流	8, 9, 10, 11	도 66, 67, 68, 69
		西段	釋氏源流	없음	
西檐牆		南段	釋氏源流	12, 13	도 70, 71
		北段	釋氏源流	14, 15, 16	도 72, 73, 74
北檐牆		西段	釋氏源流	17, 18, 19	도 17, 18, 19
		東段	釋氏源流	없음	
抱 廈	東抱廈	남벽	尊天像	1	55
		북벽	尊天像	2	56
	西抱廈	남벽	尊天像	3	57
		북벽	尊天像	4	58

으로 돌아가며 배치하고 있고, 불전 사면 중앙에서 외부로 돌출된 익각(입구 현관) 내부 벽에도 천인을 빠짐없이 그려 넣고 있다.²⁶⁾ 아래 표에서 內槽는 內陣 혹은 속칸, 外槽는 外陣 혹은 걸칸, 抱廡는 익각(현관)을 가리킨다(표 8).

2) 佛宮寺 釋迦塔 1층의 壁畫 莊嚴

불궁사 석가탑(1056)은 일명 응현목탑으로 팔각 5층 목조건물에 층마다 암층을 두어 짜 올렸기 때문에 내부는 9층으로 되어 있다. 1층에는 차양칸을 두어 외진벽과의 사이에 繞道를 두었는데, 건물 내부에도 다시 내진벽을 두어 외진부에 繞道를 마련하였다. 벽화는 건물 입구인 남문 안 문길 양쪽에 금강역사, 내진 입구 남문 양쪽에 가섭과 아난, 내진 북문 입구 양쪽에 금강역사·역사·鬼卒 등을 배치하여 내진부를 위요하도록 배치하였으며, 내진 내벽에는 다시 본존불상을 둘러싼 벽체의 6면에 각각 독존불을 대형으로 그려 놓아 본존불상을 장엄하고 있다.²⁷⁾

3) 崇福寺 彌陀殿의 壁畫 莊嚴

숭복사 미타전(1143)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대형 건물로 내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단일형 불전(圖 31)이다. 凹形 佛壇에 阿彌陀三尊佛像을 비롯하여 4협시보살과 2금강상을 좌우대칭, 가로방향으로 죽 늘어세우고 있다(圖 34). 전면 내진주열에서 기둥을 2개 感柱하고 불단 앞쪽을 凹形으로 움푹 들어가게 하여 예불 분위기를 장엄하게 연출하고 있다.²⁸⁾

더구나 불상 봉안부를 둘러싼 외진벽에는 동·서·북 3면에 모두 대형 三尊圖를 그려서 주존불을 장엄하게 위요하고 있고, 남벽 좌우 퇴칸에는 3佛3菩薩圖와 千手千眼觀音菩薩圖가 그려져 있어서 전면 5칸과 배면 3칸에 창호를 배치한 것 이외에는 모두 벽화로 장엄하고 있는 셈이다(표 10). 우리나라 불전이 기둥으로 벽체를 나누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 불전은 벽체가 기둥을 모두 에워싸서 감추고 있어서 대형벽화의 제작이 자유롭기 때문에 불전 내부를 장엄함 불세계의 모습으로 연출해내기가 쉬운 것이다. 더구나 숭복사 미타전의 동벽은

26) 『正定 隆興寺』(文物出版社, 2000), pp. 122~140 도판, pp. 280~284 도판설명 참조.

27) 이와는 달리 내부에 심주를 세운 靈丘縣 覺山寺 13층塔(遼代)의 경우에는 내부 심주와 외벽 사이에 요철 공간을 두고, 남문 입구 내벽에 관세음보살, 북문 입구 내벽에 지장보살, 중심주벽(8개 면)에 사천왕, 내벽(6개 면)에 명왕 등을 그려 놓고 있어서 전탑 1층 내부의 壁畫莊嚴 예를 볼 수 있다. 물론 내부에 불상을 봉안할 수는 없었다.(『山西寺觀壁畫』, pp. 25~27, pp. 174~176 도판, pp. 299~300 도판설명 참조)

28) 훗날 구조상의 허점이 드러나 진후 기둥열에 맞추어 활주를 세우는 바람에 오히려 불세계의 분위기가 손상되어 있다. (『朔州 崇福寺』, 文物出版社, 1996, p. 140 도. 16 및 p. 268 도. 166)

5.64m×16.44m(28.6평), 서벽은 5.72m×21.53m(38평)로 그야말로 거대한 벽화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참고로 숭복사 미타전내 잔존 벽화의 총면적은 321.02㎡(99평)에 이른다.²⁹⁾

<표 9> 佛宮寺 釋迦塔 1층의 벽화 장엄

벽화의 위치		벽화 크기 (높이×폭, 단위 : m)	벽화 주제	『山西寺觀壁畫』 수록 도판 번호
남문 안 문길	동벽	3.15×2.78	密迹金剛像	도. 57
남문 안 문길	서벽	3.16×2.80	密迹金剛像	도. 58
內 槽 (벽두께:8.5m)	남문 동쪽 扇面牆	6.48×1.68	가섭 (사천왕)	도. 59(61)
	남문 서쪽 선면장	6.45×1.48	아난 (사천왕)	도. 60(62)
	북문 동쪽 선면장	7.5×1.68	護法金剛 (사천왕)	도. 65(63)
	북문 서쪽 선면장	7.42×1.67	護法金剛 (사천왕)	도. 66(64)
	북문 동쪽 八字牆	7.43×0.75	力士와 鬼卒	도. 67
	북문 서쪽 팔자장	7.44×0.74	力士와 鬼卒	도. 68
	남문 橫披板 3方	1.52×3.30	공양인(여)	도. 69~71
	북문 橫披板 3方	1.51×3.32	공양인(남)	도. 72~74
	內壁 서북면	7.61×4.79	獨尊佛, 飛天	도. 75~79
	내벽 서면	7.60×4.81	" , 비천	
	내벽 서남면	7.60×4.81	" , 비천	
	내벽 동북면	7.58×4.82	" , 비천	
	내벽 동면	7.61×4.79	" , 비천	
	내벽 동남면	7.62×4.81	" , 비천	

* 『山西寺觀壁畫』, pp. 27~30, pp. 177~183 도판, pp. 300~302 도판설명 참조

29) 『朔州 崇福寺』(文物出版社, 1996), p. 79, <표 2> 미타전벽화면적통계표 참조.

<표 10> 崇福寺 彌陀殿의 壁畫 莊嚴

		벽화의 위치	벽화의 주제	『朔州 崇福寺』 게재 도판 번호	창호 구성
外 陣 壁	東山牆 (東壁)	北鋪	三尊圖는 박락, 飛天圖	도. 215~217	4칸 모두 벽
		中鋪	삼존도, 五尊坐佛圖	도. 207~214	
		南鋪	삼존도, 비천도	도. 199~206	
	後檐牆 (北壁)	東盡間(우퇴칸)	主尊 박락, 우협시 잔존, 兩尊坐佛	도. 245~247	7칸중 어칸, 좌우 제2협칸은 판문, 나머지 4칸은 벽
		東梢間(제2우협칸)의 문미 상벽	八寶觀	도. 248~252	
		西梢間(제2좌협칸)의 문미 상벽	十六寶觀	도. 253	
		西盡間(좌퇴칸)	삼존도	도. 242~244	
	西山牆 (西壁)	南鋪	삼존도, 비천도	도. 218~225	4칸 모두 벽
		中鋪	삼존도, 五尊坐佛圖	도. 226~233	
		北鋪	삼존도, 비천도	도. 234~241	
前檐牆 (南壁)	西盡間(좌퇴칸)	千手千眼觀世音菩薩圖	도. 261~269	7칸중 5칸은 문(裝格扇), 좌우 퇴칸은 벽	
	東盡間(우퇴칸)	6존(석가, 약사, 비로사나 등 3불, 地藏王, 除蓋障, 妙吉祥 등 3보살)	도. 254~260		

* 이 표는 『朔州 崇福寺』(文物出版社, 1996)를 자료로 하여 작성되었음.

* 북벽의 벽화는 청대에 수리하면서 훼손됨.(柴澤俊 編著, 『山西寺觀壁畫』(山西省古建築保護研究所, 文物出版社, 1997), p. 30.

IV. 韓·中 佛殿 莊嚴의 비교

1. 평면형식

당, 오대, 송, 요, 금대 불전의 평면 형식은 단실형식과 내외진이중형식으로 대별된다. 唐代부터 이미 두 가지 형식이 공존하였는데, 내외진이중형식은 융흥사 마니보전(송, 圖 21)과 응현목탑(요, 圖 24) 1층에 그 예를 남기고 있을뿐이며, 선화사 삼성전(금)에서 보듯 卍字形

扇面牆에서 一字形 後佛壁으로 약화된다. 그리하여 송, 요, 금대에는 대부분의 불전이 단실형식을 채택하게 되었던 듯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6세기의 皇龍寺 中金堂(圖 39)으로부터 10세기의 居頓寺 金堂에 이르기까지 내외진이중형식 불전이 5채나 확인되고 있으며, 내진벽의 폐쇄도도 훨씬 높아서 내진부 전면에 문과 벽체를 두어 내진부 전체를 감실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1에서 '집은 冂字形'으로 명명).

<표 11> 동아시아 내외이진형식 불전의 내진

불전 나라	이름	창건 시기	규모	內陣壁	비고	
한국	황룡사 중앙금당	584년	9×4 (11×6)	7×2, 집은 冂字形	발굴	
	화엄사 각황전	886년경	7×5	5×3, 집은 冂字形	1702년 재건, 1930년대 해체 수리시 도면	
	법광사지 금당	9C 추정	5×5(3겹)	3×3, 집은 冂字形	지표조사, 내진 전후 어간에 출입구, 맨 속간에 후불벽	
	영암사지 금당	9C 중엽 추정	3×3	1×1, 冂字形	발굴	
	거둔사지 금당	고려초	5×3	3×1, 집은 冂字形	발굴, 列立龕室形	
	상경 용천부	제1호절터 금당	8-9세기	5×4	3×2, 집은 冂字形	발굴
		제9호절터 금당	"	5×4	3×2, 집은 冂字形	발굴
		제4호절터 금당	"	5×4	3×2, 집은 冂字形	略發掘
		제5호절터 금당	"	5×4	3×2, 冂字形	略發掘
		제6호절터 금당	"	7×4	5×2, 집은 冂字形	약발굴
중국	佛光寺 東大殿	中唐, 857년	7×4	5×1.5, 冂字形	내진측면 半開放	
	隆興寺 摩尼寶殿	宋初, 1052년	7×7(3겹)	3×3, 冂字形		
	晉祠 聖母殿	1023-1031년	7×6	5×4, 집은 冂字形	2층외진4면개방형	
	永樂宮 三清殿	元,	7×4	3×1, 冂字形	내진측면 半開放 道觀	
일본	藥師寺 金堂	平安, 720년경	7×4	5×2, 冂字形	차양칸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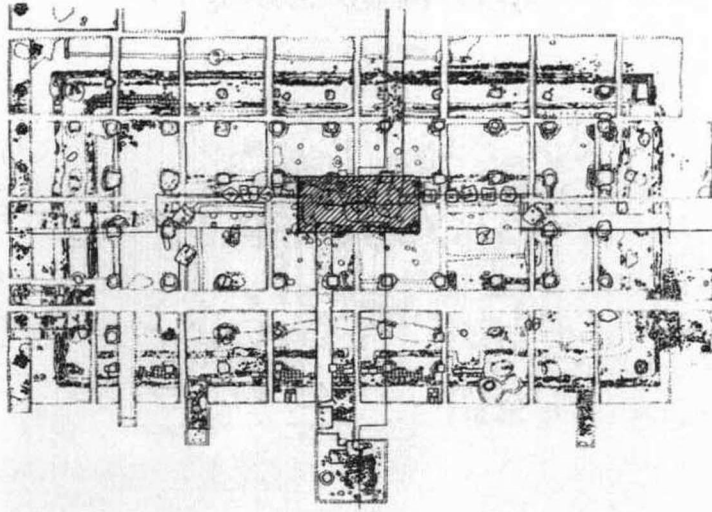


圖 39. 경주 皇龍寺址 중금당

발해 절터 불전의 경우는 전면부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3면에 내진벽을 두른 예가 많아 唐代와 유행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중국 남북조시대 이후 唐代까지의 불교사원이 발굴·조사된다면 우리나라 불전의 내외진이중형식과 같은 건물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실형식 불전의 경우 선화사 삼성전 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후불벽을 둔 경우(법광사지 금당)가 있으나, 대개는 후불벽을 두지 않은 개방적인 내부를 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佛壇

앞에서 唐~金代 불전 내부의 내진부에는 하나같이 불단을 가설하고, 그 위에 불보살을 비롯하여 여러 존상을 입체적으로 도열시켜 봉안하였음을 보았다. 불전 내부의 바닥과 마찬가지로 불단은 전돌로 쌓아 조성하였는데, 그 평면형식에 따라 凹形 佛壇과 四角形 佛壇으로 대별되었다.

凹形 佛壇은 남선사 대전(圖 5)의 예에서 보듯 盛唐 시기부터 채택되었는데, 사천왕상을 前進 배치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송, 요, 금대 불전에서는 물론 오대, 송초의 석굴사원에서도 많이 등장하기에 이때 크게 유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발해 상경 용천부의 8~9세기 절터 금당(圖 6)에서 보이고 있어서, 당 불전

과 유행을 같이 하고, 후대인 요와 금에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신라 불전에서는 그 사용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흥미롭다.

사각형 불단은 唐末 불광사 동대전에서 비롯되어 오대, 송, 요, 금대에 걸쳐 훨씬 더 널리 사용되었다. 내외진이중형식의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사각형 불단을 채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나 고려초에 사각형 불단을 널리 쓴 데 반하여, 발해 상경용천부 절터 금당에서는 요형불단을 채택하여 차이를 보인다.

3. 內陣壁

내진을 벽으로 둘러싼 경우 벽체의 폐쇄 정도에 따라 口字形, 좁은 冂字形, 凵字形, 一字形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 4가지 유형을 다 볼 수 있으나, 현존하는 중국 불전에서는 뒤 2가지만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 隋·唐代에는 앞의 2가지 유형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앞으로의 발굴이 기대된다. 한편 내진벽을 벽화로 장엄하여 불전을 불세계로 이미지화하는 일은 唐末 불광사대전으로부터 宋初 응흥사 마니보전이나 응현목탑에까지 일관되게 보이므로, 우리나라 내외진이중구조 건물의 내진벽도 벽화로 장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화엄사 각황전은 화엄경을 둘레 새긴 石經으로 내진벽을 장엄하였다는 점에서 특례에 속한다.

4. 外壁의 창호 구성

불전 내부에 봉안된 존상과 장엄된 벽화는 禮佛에 걸맞는 佛世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대장치이다. 그러한 존상과 벽화를 눈으로 보고 瞻禮, 拜禮, 繞匝 등의 儀禮를 불전에서 거행하면서 佛에 대한 경외심을 배양하는 곳이 불전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³⁰⁾

만약 이 무대에 치밀하게 계획된 照明이 더해진다면 劇的 效果는 배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불전에서는 단층 불전은 물론이고, 2층 불전 심지어는 5층 목탑에서조차 불단과 그 위

30) 고대에는 불전 내부를 神聖不可侵의 영역으로 여겨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리라고 본 주장(井上忠夫, 『日本建築の空間』, 鹿島出版會, 1977)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것 같다. 山岸常人の 연구(『奈良時代の法會と寺院建築』, 『東大寺と平城京』-日本美術全集 第4卷-, 日本: 東京, 講談社, 1990, 6, pp. 189~195)와 이강근의 연구(『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제12호, 1998, pp. 53~88), 그리고 蕭默의 연구(『敦煌莫高窟의石窟形式』,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二』, 敦煌文物研究所編, 日本平凡社, pp. 206~226)는 각각 일본, 한국, 중국의 불전 내부에서 하나같이 의례가 거행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에 도열한 존상을 휘영청 밝히 줄 빛은 공급되지 않는다. 사면이 두꺼운 벽체로 감싸져 있고 벽 사이에 뚫려 있는 길 위에 설치한 문조차도 판장문이어서 활짝 열어 젖힌 상태라야 불전 내부에 빛이 공급될 수 있다.

唐代의 두 불전 가운데 남선사 대전(圖 3)에서는 비록 3면이 벽으로 닫혀 있으나 전면 양 협칸에 살창을 두어 전면 채광만은 후대의 다른 어떤 불전보다 적극적이다. 서향 불전인 불광사 동대전도 전면 7칸 중에 5칸에 판장문을 달고, 좌우 퇴칸에는 살창을 두었으며, 아울러 측면 후퇴칸에까지 살창을 두어 3면이 두꺼운 벽체로 막힌 불전 내부에 최대한 빛을 공급하려 애쓰고 있다.

五代의 진국사 만불전(圖 9)은 전면을 남선사 대전과 같은 모습으로 설계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 출입문 상부를 문살로 처리하고, 협칸의 창 면적을 증가시켰으며, 배면 중앙에 출입문을 두어 통풍과 채광을 돕고 있다. 본존불상 뒤에는 나중에 조성한 관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어서 배면 출입문의 개폐, 채광 구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만불전 배면에 출입구를 낸 것은 이 건물이 주전인 三佛樓로 가는 통로에 있는 中殿이기 때문이다. 宋初의 靑蓮寺 釋迦殿이 만불전과 같은 규모, 같은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 건물이 중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³¹⁾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의 불전은 伽藍配置上 佛塔과 講堂 사이에 놓여 있어서 중국 불교사원 내의 中殿과 같은 위치에 있는 셈이 된다. 그래서 기단 전면과 후면에 모두 계단이 가설되어 있고, 불전 배면에도 출입구를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불광사나 남선사의 대전이 모두 주전으로서 山地伽藍의 맨 뒤에 놓여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런 차이가 불전 설계에 반영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불국사 대웅전의 경우에는 사면에 계단 시설을 둔 점으로 보아 외진벽 4면 중앙에 출입구를 두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대단히 밝고 개방적인 불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의 고대 도성에 세워졌던 불교사원은 아직 거의 발굴되지 않고 있어서 그 실상을 알 수 없으나 그 가람배치가 우리와 상통하는 한 불전의 설계도 비슷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우리나라도 장항리절터에서처럼 산지가람의 경우 주전을 맨 뒤에 배치하였고 그럴 경우 굳이 뒷 문을 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송, 요 금대에 이르면 中殿에서는 선화사 삼성전처럼 배면에 출입문을 두기는 하였으나 전면에 둔 창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어 줄어드는가 하면, 主殿인 불전들은 화엄사 대웅보전, 선화사 대웅보전, 화엄사 박가교장전에서처럼 3면을 여전히 두터운 벽체로 감싼 채 전면에만 문 위에 高窓을 두어 채광량을 늘리고 있는 정도이다. 반면에 配殿인 불광사 문수전에서는 남향한

31) 『山西佛敎彩塑』, p. 319, 〈석가전불상위치도〉 참조.

전면 7칸 중 5칸에 창호를 설치하고 배면 어칸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빛에 대하여 비교적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송복사 미타전(1143)은 정면 7칸 중 중앙 5칸에 살문과 고창을 달고(圖 30), 배면 3칸에 판장문을 다는 등 그 어떤 불전보다도 개방적인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불전 내부(圖 31,34)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전면 고주 중 2개를 생략하고 2개는 옆으로 移柱시켜 불상 봉안부를 배례자에게 최대한 개방하려는 자세와도 상통한다. 그러나 양측면은 여전히 두터운 벽으로 감싸져 있고, 배면의 출입구도 뒤에 있는 관음전과의 연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중국 불전에서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개방성이 확대되는 듯한 일면도 있으나, 여전히 감실에 가까울 정도로 폐쇄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측벽은 불광사 동대전에서 맨 뒤칸에 살창을 단 것 이외에 어떠한 개방성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속성은 元, 明, 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봉정사 극락전(12세기경)에서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경)으로의 변화에서 보듯 정면 전체가 창호로 바뀌고, 배면에도 출입구가 증가되며, 수덕사 대웅전(14세기)에서 보듯 좌우 측면 앞퇴칸에 출입구가 발생하고, 봉정사 대웅전(5세기)에서 보듯 측면 어칸을 제외하고 온통 창호가 설치되어 벽이라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까지 발전된다. 여기서 빛과 출입에 대한 개방성이 일관되게 증대되는 것은 예배상으로서의 불상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대 불전은 불국사 대웅전처럼 건물 4면에 출입문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중국의 불전이나 봉정사 극락전처럼 3면을 벽으로 감싼 감실형 불전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고려 후기 부석사 무량수전에서처럼 개방적인 불전이었을까? 중국에서와는 달리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의 단선적인 전개를 가정할 때 해답은 쉽게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역사상의 전개가 과연 그러했는지는 아직 단언할 단계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일본 고대 불전의 중세적 전개를 포함한 동아시아 불전의 변천사를 심도있게 연구할 때 비로소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5. 목탑 1층의 내부

중국 최고의 목탑인 응현목탑(1056)은 구조기법상 우리나라 목탑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목탑이 1층 중앙에 심주를 세우고 이를 맨 위층까지 연장시켜 탑의 핵심부를 삼고 있는 반면, 응현목탑에서는 심주를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응현목탑(圖 24)에서는 1층에 내외진이중형식 불전을, 2·3·4·5층에는 각각 단실형 불전을 구성해 놓고 있다. 목탑은 아니지만 영구현 각산사 13층전탑(圖 40)의 경우에 1층은 심주와 외벽 사이에 형성된 요도를 갖추고, 전후 출입구 좌우 벽과 심주벽, 내벽 등에는 불사리를 보호할 신중상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圖 40. 영구현 覺山寺 13층전탑

이 두 가지 예는 일본 고대 목탑 1층의 내부 장엄과 함께 우리나라

고대 목탑의 장엄을 추정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경주 황룡사 9층목탑일 터이나, 심주와 사천주로 이루어진 코어 안에 불사리가 봉안되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그 코어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세 겹의 내외진은 어떤 용도로 쓰였으며, 또 사천주벽에는 어떤 불교미술이 장엄되어 있었던 것일까? 하는 문제는 간단히 해답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 황룡사 목탑 건립 당시 황룡사의 종교적 성격, 왕실불교의 숭앙 대상, 금당 봉안 불상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답을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³²⁾

IV. 맺음말

불전 건물은 한국과 중국의 건축사를 선도해 온 중요한 건물이다. 현존하는 오랜 건물 중에도 한국과 중국 모두 불전이 가장 많다. 불교사원내의 중심건물인 主佛殿은 한국에서는 金堂, 중국에서는 大殿이라고 불렀다. 이름이야 어찌 되었든 내부에 여러 존상이 갖추어지고, 내외 벽에 벽화가 장엄됨으로써 불전은 종교활동의 장인 동시에 종합예술의 장으로서 기능해 왔던 것이다.

건축과 조각과 그림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던 흔적을 우리는 고대와 중세의 불전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산서성에 남아있는 당, 오대, 송, 요, 금대의 불전을 조사 연구하면서 새삼

32) 權鐘滿은 「韓國 古代 木塔의 構造 및 意匠에 관한 연구: 皇龍寺 木塔의 復元的 考察을 중심으로」(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의 p. 188에서 황룡사 목탑의 예불공간에 사방불 관념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심주를 중심으로 한 사천주간의 판벽에 사방불을 그리고 이와 함께 사천왕과 팔부중을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한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대와 중세의 불전은 고려말의 몇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기에, 그 모습을 중국의 불전에서 찾아보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선 불광사 동대전이 내외진이중형식의 불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³³⁾ 둘째로는 응현복탑의 1층이 내외진이중형식 불전과 닮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마지막으로는 발해 상경용천부 절터의 금당에서 보이는 특징 즉 내진벽과 요형불단이 결합된 모습이 중국 당대의 두 불전인 남선사대전의 요형불단과 불광사동대전의 내진벽과 두루 관련이 있다는 깨달음이다.

중국의 불전과 한국의 불전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불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산서성의 불교사원을 중심으로 11채의 건물을 표본으로 삼아 불전의 장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중국 현지의 불교사원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후속 연구에 반영하고 싶다.

33) 직전 연구에서는 잘못하여 단실형 불전으로 분류하였었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Ancient Buddhist Archite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Lee Kang-geun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ancient Buddhist architecture of Korea to that of China. In particular it aims to explo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way statues were enshrined and murals were installed.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programs and the design of Buddhist halls, the concept of *zhuangyen* 莊嚴, which expresses the beauty and majesty of a Buddhist pure land, needs to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Liang Sicheng 梁思成, a great historian of Chinese architecture, wrote, "Although China has been considered a land of freedom of worship, there were at least three great persecutions of Buddhism from the fifth to the ninth centuries. The last of these took place in 845 and almost stripped the country of all Buddhist temples and monasteries. These persecutions and the highly perishable nature of the material probably account for the total absence of timber structures before the middle of the ninth century." Nevertheless, there are a number of remains of Chinese wooden architecture from Tang (618~907), the Five Dynasties (907~960), Northern Song (960~1126), Southern Song (1127~1278), Liao(907~1125) and Jin (1125~1234), for example, the main halls of Nanchansi 南禪寺 (782) and Foguangsi 佛光寺 (857), the Hall of Myriad Buddhas of Zhenguosi 鎮國寺, the Hall of Mañjuśrī of Foguangsi (1137), the Mani Hall of Longxingsi 隆興寺 (1052), the library (1138) and the main hall (1140) of Huayensi 華嚴寺 (1038), the main hall (11th century) and the Hall of Three Saints (1123~43) of Shanhuasi 善化寺, and a wooden pagoda of Fogongsi 佛宮寺 (1056). In addition, nearly ten-thousand architectural paintings could be found in Dunhuang murals.

In Korea many Buddhist temples were built during the Three Kingdom (57 B.C.~ A.D. 668), the Unified Silla(668~936), the Palhae (699~926) and the Koryŏ (918~1392)

periods. Although most of the buildings disappeared except for a few, some of the remains have been confirmed through literary sources and archaeological excavations. Main halls of Hwangnyong-sa 皇龍寺 (584), Yöngam-sa 靈巖寺 (9th century), Hwaömsa 華嚴寺 (886), Pöpkwang-sa 法光寺, Ködon-sa 居頓寺 and Sites 1 and 9 (8th-9th century) in the capital of Palhae are just a few examples.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plan and design of the main Buddhist hall of ancient China and Korea changed over time. The conventional scheme of the main hall is composed of a chancel-and-aisle 內外陣. The space is thus divided into two parts: a sanctuary and a public area. There are two types of sanctuary plan, a walled-in 內陣壁, 扇面牆 sanctuary and an open sanctuary. The main hall of Foguangsi, the Mani Hall of Longxingsi, and the first floor of the wooden pagoda of Fogongsi are categorized in the former. The rest of the main halls of other temples are classified into the latter. There are also two types of altar plan in China and Korea: a rectangular altar and a 凹-shaped altar. The main hall of Nanchansi has a 凹-shaped altar, while the main hall of Foguangsi has a rectangular altar. Two buildings are considered to be the oldest extant ones in China. However, the main hall of Foguangsi has two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 a rectangular altar and a walled-in sanctuary.

The Buddhist architecture of Silla may have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Foguangsi style. A number of similar types have been identified in many different regions in Korea. In addition, similar types of buildings were continually constructed from approximately the 6th-10th centuries, although the types gradually changed through time. Material evidence to support this argument is the main halls of the Hwangnyongsa, Yöngamsa, Hwaömsa, Pöpkwangsa and Ködonsa sites.

The architecture of Palhae shows very interesting aspects. Both a 凹-shaped altar and a walled-in sanctuary are simultaneously adopted in Balhae temples, and this has not been noticed by any scholars ye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凹-shaped altar of main hall of Buddhist architecture in Liao could have been influenced by Palhae rather than Tang.